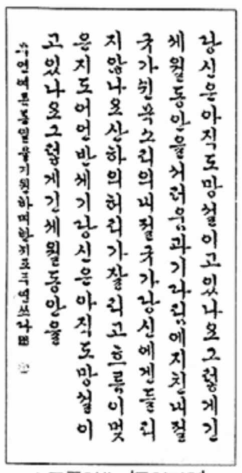


◇조주연作 '통일기원'.

통일서예대전 대상에 조주연씨 한글서예

한국종교서예인협회(회장 법타스님)와 평불협,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공동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에서 조주연씨의 한글서예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문부문 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이봉재씨의 '黃龍紫鳳', 통일부장관상에 이재무씨의 '夜坐聽雨', 행정자치부장관상에 최광일씨의 '趙璞선생 詩'가, 한글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박순아씨의 '금강유람가', 문인화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박경호씨의 '大意', 전각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이명실씨의 '김영재님의 저녁산 중에서'가 각각 선정됐다.

'나라의 통일, 종교간의 화해, 서예인들의 화합'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통일서예대전에는 한문 484점, 한글 379점, 문인화 101점 등 총 968점이 출품돼 특별상 8명 특선 95명 입선 27명 등이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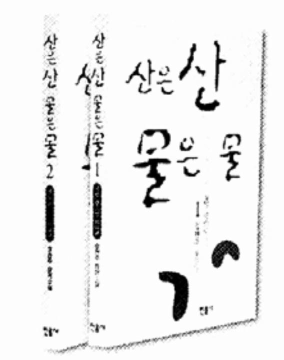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소설로 환생한 성철스님

정찬주 구도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젊은시절 수행과정 장좌불와 일화 등 마치 생전모습 대하듯

◇정찬주씨



영원히 회자될 불멸의 깨우침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법어를 남긴 우리 시대의 스승 퇴옹 성철스님. 그 모습과 가르침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정찬주(45)씨가 펴낸 〈산은 산 물은 물〉(전 2권, 민음사 刊)은 성철스님의 수행 모습과 일화가 생생히 펼쳐져 있는 전기이자 구도소설. 저자 특유의 서정적이고 담백한 문체로 품격을 지키면서 형상화된 성철스님의 모습은 천년의 풍우를 견딘 수승(殊勝)한 탑으로 다가온다.

조계종 원로회의장 혜암스님과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도선사 도우스님 등 성철스님과 인연있는 20여 스님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것도 특이하다.

이야기는 서울지방검찰청 정익진 검사가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화두를 풀기위해 성철스님 수행지를 돌아다니는 것으로부터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성철스님의 수행과정과 일화들이 속속들이 드러난다. 출가전 일본을 다녀오면서 관부연락선 갑판에서 목숨을 던지려했던 방황과 하이네 시집과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좋아했던 젊은 시절 스님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선다.

그리고 8년간 한 순간도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고행, 출가 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중생의 죄를 대신해 절을 했던 백팔참회, 평생 생식을 했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정검사가 고행끝에 얻은 깨달음은 '성철스님은 없다'. 자신이 깨달은 마음자리가 곧 성철이요 부처임을 알게 된다. 결국 성철을 찾아 헤맨 1년간 자신은 늘 성철스님과 함께 생활해왔음을 깨우친다. 여기에서 저자는 정검사가 곧 우리들 자신임을, 성철스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추는 거울임을 암시한다.

저자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해인사 통도사 등 성철스님이 계셨던 곳은 모두 찾아다녔다. 이 작품을 읽어 본 성철스님의 딸 불필스님으로부터 "큰스님의 모습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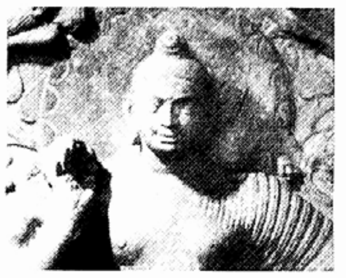
정찬주씨는 "독자들이 정검사가 된다면 스스로 자신이 곧 부처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각 권 7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

K-1TV 4 · 11일 밤 12시 방영 인도·파키스탄·중국 불상 분석

◇그리스 쿠로스상.



◇인도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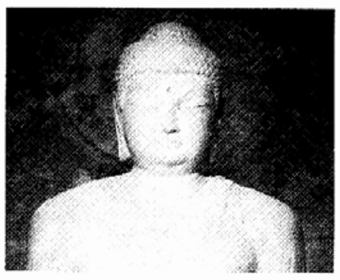
단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미소의 석굴암 본존불. 천여년동안 우리민족의 상징이었고 새 세기에도 한국인의 마음에 긍지를 불어넣어줄 그 미소는 어디서 온 것일까.

KBS-1 TV가 4일과 11일 밤12시부터 12시45분까지 45분간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2부작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는 석굴암 본존불 서산 마애삼존불 등의 고졸한 미소가 서기전 5백년까지 초기 그리스 조각에서 발견되는 '아르카익 스마일'과 같은 흐름이라고 규정한다. 석굴암 본존불에서 출발, 그 미소의 발상지로 추적되는 그리스 아테네까지 2만km 실크로드를 따라 미소의 근원을 하나씩 역추적해가는 이 기행다큐는 정수웅(다큐서울대표)감독이 기획·촬영·연출·대본·편집 등을 혼자 맡아 '1인 제작시스템'으로 완성했다. 이 프로에서는 중국과 파키스탄 불상속에 들어있는 미소들에 대한 현지 박물관장, 고고학자들의 분석과 고증을 통해 그리스·로마 문화의 미학을 의미하는 '아르카익 스마일'이 고대 그리스의 제우스상이나 아폴로 상에서 시작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학설을 설명해 준다.

특히 중국 운강 석굴 서안박물관 및 인도 마투라박물관 사르나트 불상 등과 대륙 동방 끝에 위치한 석굴암 대불을 함께 소개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미소만은 이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정씨는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에서 완성된 아르카익 미소의 역사를 통해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고자 했다"고 이 프로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중국 용문석굴.



◇석굴암 본존불.

불심시심 〈148〉

생각 허공으로 흩이자

春日雲門寺 (춘일운문사) 봄날의 운문사엔
若耶溪上橋 (야야계상교) 야야계 시내 위의 다리
漣漪明鯉目 (연기명이목) 맑은 물결 반짝이는 잉어의 눈
花蘂動蜂腰 (화예동봉요) 꽃술마다 움직이는 벌의 허리
煩敲妨詠嘯 (번계방영소) 번거로운 고동 시 읊음 방해되니
散慮落逍遙 (산려락소요) 생각 흩어 먼 허공에 떨어뜨리자
笑看烟禽向 (소간연금향) 웃으며 쳐다본 아지랑이의 새 가는 곳
山童夕採樵 (산동석채초) 산 마을 아이 저녁 땔감 벤다.

월하대사의 '야야계(若耶溪)'라는 시이다. 원래 야야계는 중국의 절강성 야야산에 있는 계곡의 이름이다. 이 시냇가의 바위 하나가 월의 미녀인 서시(西施)가 빨래한 곳이라 하여 유명해 졌다. 그래서 완사계(浣紗溪)라 하기도 한다. 이 야야계 위에 운문사가 있기에, 이 시는 첫 련에서 시의 배경을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그 주위의 풍광을 자연스럽게 읊고 있다.

물이 맑기에 고기의 눈빛이 밝다. 잉어의 눈이 밝다 하였으니 역시 그리 흔히 쓰이는 일상어는 아니다. 물의 맑음과 물고기의 밝음을 동질적으로 한 공간에 두었으니 이 맑음과 밝음의 대조가 봄날의 화사함을 돋보이게 한다.

갓 피어나는 꽃술은 벌들을 바쁘게 한다. 꽃술이 벌의 허리를 동요시킨다. 벌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꽃술이 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쪽의 동작을 보이기 위하여 저쪽 사물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수법이니, 이 또한 불교의 연기적 상상이라 할 것인가.

이럴 때 시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이런 외계의 번다함에만 주목하다 보면 생각이 흩어져 초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도피시켜야겠다. 그래서 저 먼 곳으로 시선을 돌려 저 한적하고 아늑한 곳으로 떨어뜨렸다. 이 시선은 새들이 날아가는 그 곳과 일치된다. 그러나 그곳이 새의 지향점이 아니라, 산마을 어린이의 나무하는 곳이었다. 이 고요와 한적을 저 나무하는 초동의 풀짐속에다 담아버리고 말았다. 위에서 말한 허공은 허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산사람의 마을이었던 것이다. 역시 승 속의 거리를 단절한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경주 나원리 5층석탑서 발견한 종이 현존 최고 다라니경 사경 '확인'

지난 96년 해체보수과정에서 수습된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국보 제39호) 사리함 안의 종이조각이 현존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사경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8세기초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에 따르면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나온 다라니경은 초기 사경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 최고본으로 알려진 황복사 다라니경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라니경은 각 다라니마다 77벌 또는 99벌의 필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인쇄술 발명의 계기가 되어 석가탑에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봉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지연 기자

화제의 전시

이인자 일러스트전 '蓮'

◇이인자作 '연'.

경기대 이인자교수(산업디자인과)가 연꽃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전을 6~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화랑에서 갖는다. 이번 '蓮'전에서는 실을 이용한 오브제로 연잎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래픽화한 핸드드로잉 작품 26점을 만나볼 수 있다. (02)411-4761

정경용 불교미술전

정경용씨(동국대 미술과 강사)의 불교미술전이 5일부터 12일까지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등 소조작품과 10대제자상, 감실보살사유상〈사진〉, 십일면 관세음보살상 등 석굴암조각을 채색으로 옮긴 불화, 비천상, 달마상, 용 등 70여점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02)733-5590

문화재기능인 작품전

◇조계수作 '대웅전'.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는 14일까지 충남 예산 덕산면 한국건축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문화재기능인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여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흥수 신응수씨 등 회원들의 작품 2백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0458)337-5877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 지 청 안 합장

· 입 재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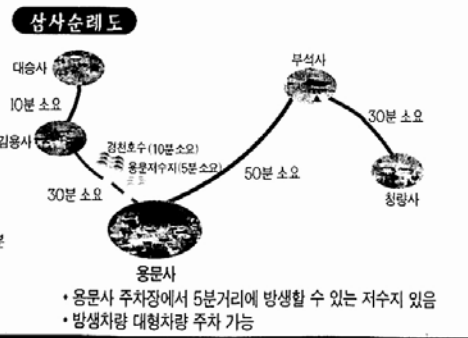
· 등(1인1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화산 큰스님,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 안 사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 10~6 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